

• 타운뉴스칼럼

# 협업(協業)

안창해  
타운뉴스 발행인



지난 주말, 트레일을 걷던 중에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 왔다. 평소에는 밝고 명랑한 음성으로 얘기하던 그가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요즘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 문제' 로 마음이 무겁다는 것이었다.

사연은 이러했다. 자영업자를 하는 친구에게 타주에서 이사 온 후배가 "일을 배우고 싶다" 며 함께 일하자고 제안해왔다. 경험이 부족한 후배는 문서 정리, 현장 동행 같은 보조 업무를 맡았고, 주요 계약과 클라이언트 유치는 친구의 몫이었다. 친구는 후배가 '수습 중인 직원'이라고 생각했고, 수익의 일정 부분을 나누어 주었다. 반면 후배는 자신을 "동등한 파트너" 라고 여겼을 가능성이 크다. 협업의 틀이 애초부터 서로 달랐다.

문제는 반년쯤 지나서 터졌다. 후배가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제가 한 일의 대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요?" 친구는 당황했지만 차분히 답했다. "일을 직접 가져오면 배분이 더 늘어날 거야." 그러자 후배가 되물었다. "일도 직접 가져와야 하나요?" 그 순간 친구는 황당함과 불편함이 동시에 밀려왔다고 했다. 그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과 "이 관계가 오래 갈 수 있을까" 하는 회의 사이에서 흔들렸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얼마를 받았는가' 에 예민하다. 실제로 기여한 크기보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인정했는지가 더 크게 다가온다. 그래서 협업에서는 역할과 관계의 정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파트너십' 이라면, 모든 과정과 이익을 공동으로 책임지고 나눈다. 하지만 '도제 관계' 라면, 배우는 사람은 경험과 기술을 얻는 대신 낮은 보상과 제한된 권한을 감수한다. 두 관계 모두 틀린 것은 아니다. 문제는 시작할 때 그 경계가 불분명할 때 생긴다.

사업을 하다보면 이런 오해는 수없이 반복된다. 스타트업 창업자들 사이에서도 한 사람은 '함께 창업한 공동창업자' 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내가 키우는 직원' 정도로 여긴다. 초기에 주식 지분, 권한,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 갈등이 폭발한다.

돈은 관계의 거울이다. 평소에는 잘 지내던 사이도 돈이 얽히면 관계의 본질이 드러난다. 후배의 불만은 단순히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는 파트너로 존중받고 있는가?" 라는 물음이 담겨 있었다. 반대로 친구는 "아직 배우의 단계인데 왜 파트너 대우를 요구하지?" 라는 의문을 가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옳고 그른지가 아니다. 관점이 다르면 협업은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일을 시작할 때 "수익은 어떻게 나누고, 책임은 어디까지 지고, 배우의 기회와 권한은 어디까지 주어지는가" 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보상' 을 둘러싼 오해가 쌓여 관계가 금이 간다.

나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무엇보다 네 마음이 편해야 해. 같이 하고 싶다면 기여와 보상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해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감정 상하지 않게 정리하는 것도 선택이야."

협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기준은 결국 마음의 편안함이다. '이 사람과 계속 일하면서도 편안할까?' 라는 질문에 섣뜻 '그렇다' 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이미 관계는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억지로 이어가면 갈등은 더 커진다.

중요한 건 함께하지 않는다고 인연까지 끊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성숙한 관계의 방식이다. "나는 너와 일하면서 많이 배웠고 고마운 점도 많아. 하지만 생각하는 방향이나 기대가 조금 다른 것 같아. 지금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한다면 상대는 비록 당장은 서운하더라도, 언젠가 다시 손잡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남는다.

소규모 사업에서 '사람' 은 곧 '시스템' 이고, '신뢰' 는 곧 '자산' 이다. 일을 잘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관계를 잘 정리하는 능력이다. 누구와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을지를 보는 눈, 때로는 직별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야말로 일의 성과를 좌우한다.

세상에 좋은 사람은 많다. 그러나 '좋은 사람' 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은 전혀 다르다.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좋은 파트너가 되지는 않는다. 함께 일하기보다 친구로 지내는 게 더 나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히려 일과 돈이 섞이면서 관계가 망가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

후배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다. 또, 친구가 인색해서도 아니다. 단지 서로가 생각한 '관계의 틀' 이 달랐을 뿐이다. 협업이 끝난다고 인생의 인연이 끝나는 건 아니다. 어떤 관계는 정리했을 때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 "그때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 라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좋은 일을 만드는 힘은 결국 좋은 관계에서 나온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만드는 힘은 필요할 때 정리할 줄 아는 용기에서 비롯된다.

chahn@townnewsusa.com

타운뉴스



## 제1591호 목차

- 타운뉴스 칼럼 ..... 15
- 커뮤니티 소식 ..... 17,19,29
- 나는야 1.5세 아줌마 ..... 20
- 세상에 이런 일이 ..... 21
- 전문인 칼럼 ..... 22,23,42
- 법률 ..... 25
-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곳 ..... 27
- 숨은그림 찾기/답, 낱말 퀴즈/답 ..... 32/51, 32/57
- 업소탐방 ..... 35
- 함께생각 ..... 37
- 건강 ..... 39
- 부동산/경제 ..... 41
- 깔깔 ..... 44
- 한인업소 안내지도 ..... 46,48,66,68,70
- 요리 ..... 47
- 셀폰으로 본 세상 ..... 49
- 종교 ..... 52
- 국내 ..... 56
- 안내광고 ..... 58,59
- 영화/신간 ..... 69

# 기주장의식

매장·화장·묘지주선·이장·장례보험등

- 넓은 주차장 • 교통 편리 (LA, OC-20분)
- 저렴한 비용으로 봉사하여 드립니다.

24시간 대표: 정영목 목사  
9830 Lakewood Blvd., Downey, CA 90240  
TEL (562)622-9393

## 자동차·집 보험 문의 환영



메이저 회사 25년 경력  
정확하고 친절한 한국어 서비스  
YOUNG K. PARK, JD  
(CA Lic No. 0C71251)

714.340.6903 / 714.715.8088

### Keon-Jung Kim Dental Corp.

IMPLANT, COSMETIC, ORTHODONTIC & LASER DENTISTRY ORAL SURGERY

www.timkimdental.com

# 터스틴

# 김건중 종합치과

## 30년 이상 임상경험의 치아시식 전문의 및 4명의 각 치과 전문의와 함께 모든 치과진료를 한곳에서 받을수 있는 종합치과

Our clinic is **DISINFECTED** and **SAFE** to VISIT

#### 일반·미용치과 전문

Maria Capiral, DDS  
Diemphi Nguyen, DDS

#### 교정치과 전문

Jin Kim, DDS, MS  
Columbia 명문대 졸업  
미국 board certified orthodontist  
(미국 교정치과 보드 전문의)

#### 임플란트/구강외과 전문

Timothy Kim, DDS, MS, Ph.D



뼈가 부족한 분에서도 자가혈에서 채취한 PRP와 CGF를 이용한 뼈이식과 임플란트 수술 가능

- 3차원 CT 촬영으로 정확한 진단과 수술
- Surgical Microscope을 이용한 섬세한 외과수술 및 동영상 촬영
- 레이저를 통한 무마취·무출혈·무통 잇몸치료

Address 2492 Walnut Ave. #200, Tustin, CA 92780  
tel. 714-760-4988 949-679-6000  
(San Diego) 760-757-9876 760-479-9876



NEW LOCATION TO BETTER SERVE YOUR DENTAL NEED

KEON-JUNG 'TIMOTHY' KIM  
구강외과/치아시식 수술전문 ORAL SURGERY  
D.D.S., M.S.D., Ph.D.

- 대한 구강악안면 외과 board certified specialist
- 인천 중앙 길병원 치과 구강외과 주임과장 역임
- 대한 구강악안면 상형재건외과학회 지도의 역임
- LSU 치대 구강악안면외과 Postgraduate Fellow 역임
- LSU 치대 구강악안면외과 조교수 역임
- New Orleans Charity Hospital 구강외과, 치아시식 임상과장
- 미 치아시식학회 (AAID, AO)회원
- ADA, CDA, OCS, KADA 회원